

## II.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교육 영역 지표

4. 복지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2)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3)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최하 56.28점

평균 65.54점

최고 78.41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대전, 세종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

2023년 교육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65.54점(최고 78.41점, 최하 56.28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세종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인천, 경기, 전남,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78.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80.06	75.65	82.77	76.69	76.98	86.96	82.55	87.69	75.67	78.02	82.28	84.79	82.04	80.71	74.45	79.70	75.02	80.18
2022	74.96	70.80	68.42	69.43	71.67	86.30	77.32	86.90	65.94	70.81	73.46	76.94	74.80	68.08	67.81	73.63	66.46	73.16
2023	71.08	62.70	65.78	60.34	66.33	76.41	71.08	78.41	56.28	61.42	62.45	68.21	64.43	58.53	58.40	67.28	64.34	65.54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5.46	-12.92	-4.01	-15.06	-8.05	-12.94	-8.78	-10.83	-17.16	-15.29	-17.63	-12.80	-16.09	-16.32	-16.11	-9.44	-3.29	-11.63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1년 80.18점, 2022년 73.16점, 2023년 65.54점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9.6% 하락하였고,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63%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장애인 교육분야의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1년에는 1.18배(87.69/74.45), 2022년에는 1.32배(86.90/65.94), 2023년에는 1.39배(78.41/56.28)로 지역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모든 지자체의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으며, 그 중 충북이 17.63%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모든 지자체의 교육 종합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 모두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와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부산, 인천, 강원은 3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최하 36.90점	평균 52.65점	최고 67.15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충북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서울, 대전, 제주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 수준〉

복지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52.65점(최고 67.15점, 최하 36.90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1.82배(67.15점/36.90점)로 나타났고, 2022년 조사 시 격차 1.40배(67.07점/48.01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고, 분발은 충북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6.48	50.61	54.07	48.01	55.27	62.48	57.36	55.20	51.81	51.63	49.60	50.74	48.05	49.36	48.73	56.39	67.07	53.7
2024	65.85	56.01	48.87	47.58	57.35	67.15	55.40	53.90	54.54	50.48	36.90	50.29	51.05	44.83	46.37	45.91	62.65	52.65
2022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향상률	16.59	10.67	-9.62	-0.90	3.76	7.47	-3.42	-2.36	5.27	-2.23	-25.60	-0.89	6.24	-9.18	-4.84	-18.58	-6.59	-1.96

복지 분야의 경우 2023년도에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경향을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22년 조사와 2024년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전국 평균은 2022년 53.70점에서 2024년 52.65점으로 1.96% 하락하였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2년 동안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등급의 변화는 있었다. 대전과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서울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광주, 울산, 세종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양호 등급이었고, 부산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경기도는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강원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보통 등급이었고, 대구, 경남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

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충북은 2022년,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은 장애인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2022년, 2024년 모두 평균 이하 등급에 속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도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 1)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은 각 시·도의 장애인 교육의 재정, 공급, 수요 등의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다. 교육 영역은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③ 특수학급 설치율, ④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⑤ 특수학급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⑦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과 같은 8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 (1)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최하 25,234천원	평균 35,238천원	최고 45,570천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서울, 대전, 경북, 경남	세종, 강원, 충남, 전북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평균은 35,238천원(최고 45,570천원, 최하 25,234천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강원, 충남, 전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경북,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경기 3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강원이 45,570천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25,234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32,681	29,224	42,323	27,012	30,294	34,684	20,099	59,439	26,513	39,615	34,450	36,306	42,222	35,580	27,134	33,525	24,815	34,424
2022	35,407	30,649	27,125	26,518	40,470	43,787	29,075	57,048	22,263	39,915	31,513	38,270	40,697	31,110	34,143	34,689	27,754	34,731
2023	38,914	30,227	30,606	25,839	33,861	36,197	32,918	43,636	25,234	45,570	30,629	43,770	43,643	30,587	35,383	40,017	32,020	35,238
2022 대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9.01	-1.40	11.37	-2.62	-19.51	-20.97	11.67	-30.73	11.77	12.41	-2.88	12.56	6.75	-1.71	3.50	13.31	13.32	1.44
3년 연속 상승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021년 34,424천원, 2022년 34,731천원, 2022년 35,238천원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0.88% 상승하였고,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대비 1.44%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0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남 7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20.97 ~ 13.32% 사이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상승폭이 13.32%로 가장 크고, 세종이 30.73%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인천, 세종, 충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평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강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 중 강원과 충남은 양호에서 우수 수준으로 1등급 상승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향상률이 높은 편으로 장애인 교육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구와 제주는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경북과 경남은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강원, 충남, 전북은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광주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부산은 보통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의 경우 3년 연속 우수 수준인 반면 3년 연속 향상률이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 교육 예산을 증대 또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3년 연속 향상률이 하락하는 또 다른 지역인 인천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향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최하 2.65%		평균 3.75%		최고 4.37%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기, 전남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서울, 대전, 세종, 충남, 경남, 제주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평균은 3.75%(최고 4.37%, 최하 2.65%)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세종, 충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울산, 전북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경북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4.37%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4.35	4.06	5.96	4.08	3.83	5.20	4.31	4.66	3.63	3.68	5.10	5.01	4.54	3.94	3.23	4.25	3.51	4.31
2022	4.45	4.24	3.51	3.87	5.02	5.90	3.85	5.99	2.79	3.29	4.45	4.49	4.07	2.99	3.68	4.21	3.75	4.15
2023	4.19	3.75	3.84	3.66	3.66	4.17	4.00	4.21	3.05	3.25	3.27	4.37	3.80	2.65	3.47	4.31	4.12	3.75
2022 대비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6.20	-13.07	8.59	-5.74	-37.16	-41.49	3.75	-42.28	8.52	-1.23	-36.09	-2.75	-7.11	-12.83	-6.05	2.32	8.98	-10.67
3년 연속 상승	제주																	
3년 연속 하락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국 평균은 2021년 4.31%, 2022년 4.15%, 2023년 3.75%로 2021년 대비 2022년은 3.86%, 2023년은 2022년 대비 10.67%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울산, 경기, 경남,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2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2.28 ~ 8.98%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제주가 유일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지역은 세종(-42.28%)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이며 경기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제주는 전년도 대비 보통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2단계 상승하였고, 서울, 충남, 경남은 양호에서 우수 수준, 대구, 울산, 전북은 보통에서 양호 수준으로 향상하였고, 강원은 분발에서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충북, 광주는 양호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인천은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예산 비율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3) 특수학급 설치율

최하 3.39%	평균 5.02%	최고 6.76%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평균은 5.02%(최고 6.76%, 최하 3.39%)로 나타났다. 우수는 충북, 충남,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6.76%로 가장 높고, 서울이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3.55	3.77	3.59	4.63	3.32	4.31	4.56	4.26	4.57	4.37	5.51	5.86	4.04	5.55	4.50	4.60	3.87	4.40
2022	3.92	4.02	3.81	5.02	3.51	4.52	4.97	4.72	4.91	4.67	6.22	6.21	4.39	6.13	4.77	5.05	4.08	4.76
2023	3.39	4.21	3.87	5.22	3.76	4.72	5.39	4.70	5.29	4.88	6.71	6.59	4.70	6.76	5.12	5.49	4.50	5.02
2020 대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5.63	4.51	1.55	3.83	6.65	4.24	7.79	-0.42	7.18	4.30	7.30	5.76	6.59	9.32	6.83	8.01	9.33	5.18
3년 연속 상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전국 평균은 2021년 4.40%, 2022년 4.76%, 2023년 5.02%로 3년 연속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개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며, 서울과 세종 2개 지자체는 하락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15.63% ~ 9.33%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의 지자체가 3년 연속 상승하였다.

2023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3년 간 상승 추세이며 제주, 전남, 충북의 순서로 향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부산과 제주를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3년 연속 상승한 지역 중 충북, 충남, 전남은 우수 수준으로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연속 분발 수준을 나타낸 지역

은 서울, 대구, 광주이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9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 이하값을 나타내므로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4)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최하 98.78%	평균 128.84%			최고 187.66%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제주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세종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은 평균 128.84%(최고 187.66%, 최하 98.78%)로 나타났다. 우수 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8개 지역이 며, 보통은 광주, 울산, 전북, 경북 4개 지역,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제주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187.66%로 가장 높고, 부산이 98.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138.03	105.37	116.95	117.93	131.07	133.00	123.59	144.33	139.90	134.64	135.76	135.98	131.31	145.89	111.84	127.41	105.23	128.13
2022	135.99	107.00	116.62	110.19	124.47	136.74	121.54	137.08	137.20	145.85	133.11	144.40	153.98	150.46	114.23	126.09	97.88	128.99
2023	134.28	98.78	113.27	107.53	127.33	131.28	124.85	187.66	133.41	133.98	131.19	139.46	122.51	158.24	117.15	129.46	99.90	128.84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1.27	-8.32	-2.96	-2.47	2.25	-4.16	2.65	26.95	-2.84	-8.86	-1.46	-3.54	-25.69	4.92	2.49	2.60	2.02	-0.12
3년 연속 상승	전남, 경북																	
3년 연속 하락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전국 평균은 2021년 128.13%, 2022년 128.99%, 2023년 128.84%로 2021년 대비 2022년은 0.67% 상승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0.12%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0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25.69% ~ 26.95%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전남, 경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은 세종이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대비 상승폭 또한 세종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경남이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는 보통 수준에서 분발 수준으로, 강원, 충남, 전남은 우수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1단계 하락하였다. 특히 전북은 전년도 대비 충원율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수준 또한 우수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제주 6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 이하값을 나타내므로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 (5)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최하 14.17%	평균 24.20% (전체 17.02%/유급 10.23%)	최고 37.7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기, 충북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은 평균 24.20%(최고 37.71%, 최하 14.17%)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울산, 세종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충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37.71%로 가장 높고, 경기가 1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24.38	22.08	25.03	21.80	21.35	34.71	33.68	28.13	15.67	23.54	29.91	22.83	22.89	21.55	24.68	22.90	33.24	25.20
2022	25.07	21.81	25.06	21.74	21.63	34.89	34.83	34.22	15.81	22.84	20.37	23.04	21.87	19.82	24.22	20.33	23.89	25.65
2023	27.24	20.43	25.16	19.24	24.51	37.71	34.58	36.00	14.17	23.06	18.58	22.77	21.95	20.53	22.64	20.03	22.80	24.20

2022 대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7.97	-6.75	0.40	-12.99	11.75	7.48	-0.72	4.94	-11.57	0.95	-9.63	-1.19	0.36	3.46	-6.98	-1.50	-4.78	-5.99
3년 연속 상승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3년 연속 하락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1년 25.20%, 2022년 25.65%, 24.20%로 2022년은 전년도 대비 1.75% 상승하였고, 2023년은 2022년 대비 5.99%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전남 8개 지역이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고, 경기는 향상률이 가장 낮았으며 향상률의 폭은 -12.99% ~ 11.75%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3년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대전, 울산, 세종 중 대전과 세종은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는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광주는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1단계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배치율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원은 양호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충북은 보통 수준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6) 통합교육 학생 비율

최하 65.31%	평균 72.22%		최고 79.6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제주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경기, 충남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평균 72.22%(최고 79.61%, 최하 65.31%)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경기,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제주 2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79.61%로 가장 높고, 대구가 65.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64.94	70.68	65.83	72.94	66.12	68.07	72.11	76.64	77.61	72.32	69.56	76.96	71.88	71.97	72.30	76.08	69.76	71.52
2022	66.07	71.30	65.39	73.62	66.13	68.33	73.36	79.65	78.49	72.48	70.21	75.71	72.19	71.80	73.41	75.85	70.03	72.00
2023	67.41	71.36	65.31	74.33	65.45	68.14	73.23	77.66	79.61	72.27	72.41	75.93	73.81	72.39	73.95	75.16	69.34	72.22
2022 대비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1.99	0.08	-0.12	0.95	-1.04	-0.28	-0.18	-2.56	1.41	-0.29	3.04	0.29	2.19	0.81	0.73	-0.92	-0.99	0.30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3년 연속 하락	대구, 경남																	

전국 평균은 2021년 71.52%, 2022년 72%, 2023년 72.22%로 2022년은 전년도 대비 0.67%, 2023년은 전년도 대비 0.3%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9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제주 8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충북이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고, 세종이 가장 낮은 향상률을 보였으며 향상률의 폭은 -2.56% ~ 3.04%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7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대구, 경남으로 나타났다.

2023년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3년간 상승 추세이며 경기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 중 경기도는 3년 연속 우수 수준이고, 충북은 전남과 함께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충남은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향상되어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이지만 전년도 대비 향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교육의 학생 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 경남은 3년 이상 평균값 이상의 수준이나 전년도 대비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고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과 함께 3년 연속 하락률을 보이는 대구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3년 연속 분발 수준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며 이 3개 지역과 함께 부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통합 교육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최하 1.74개	평균 2.17개	최고 2.35개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서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세종, 강원, 전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수준>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로 산출된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준은 평균 2.17개(최고 2.35개, 최하 1.74개)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강원,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전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2.35개로 가장 높고, 제주가 1.74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1	2.15	2.02	2.02	2.00	2.04	2.02	2.04	2.49	2.07	2.26	2.19	2.18	2.22	2.20	2.20	2.14	1.94	2.13
2022	2.70	2.05	2.29	2.12	2.43	2.47	2.22	2.54	2.22	2.68	2.66	2.61	2.37	2.92	2.35	2.40	1.96	2.41
2023	2.10	1.90	1.95	1.90	2.00	1.93	2.05	2.26	2.00	2.28	2.19	2.17	2.16	2.35	2.11	2.19	1.74	2.07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8.57	-7.89	-17.44	-11.58	-21.50	-27.98	-8.29	-12.39	-11.00	-17.54	-21.46	-20.28	-9.72	-24.26	-11.37	-9.59	-12.64	-16.43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																	

전국 평균은 2021년 2.13개, 2022년 2.41개, 2023년 2.07개로 2022년은 전년도 대비 11.62% 상승하였고, 2023년은 2022년 대비 16.43%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모든 지자체가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대전, 전남 순서로 하락의 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의 하락 폭이 가장 낮았다. 향상률의 폭은 -28.57% ~ -7.89%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하거나 하락한 지자체는 없었으며, 2023년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준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수 수준을 기록한 전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전북, 경북, 경남 3개 지역은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인천, 제주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며, 서울은 우수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광주와 대전은 양호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8) 장애인교원 고용률

최하 0.98%	평균 1.56%		최고 2.20%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기, 전남,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은 평균 1.56%(최고 2.20%, 최하 0.98%)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경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2.20%로 가장 높고, 경북이 0.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28	2.00	2.12	1.66	2.31	2.23	2.12	1.79	1.70	1.88	1.91	1.85	2.26	1.78	1.72	2.06	2.01	1.98
2023	2.36	1.84	2.02	1.54	1.82	2.42	2.08	1.80	1.45	1.26	1.68	1.44	1.77	1.12	1.14	1.82	1.73	1.72
2023 대비	2.20	1.65	1.80	1.29	1.89	2.09	1.80	2.11	1.18	1.28	1.36	1.27	1.51	1.03	0.98	1.62	1.41	1.56
향상률	-7.27	-11.52	-12.22	-19.38	3.70	-15.79	-15.56	14.69	-22.88	1.56	-23.53	-13.39	-17.22	-8.74	-16.33	-12.35	-22.70	-10.26
3년 연속	세종																	



상승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1년 1.98%, 2022년 1.72%, 2023년 1.56%로 2022년은 전년도 대비 15.12%, 2023년은 2022년 대비 10.26% 하락하였다.

광주, 세종, 강원 3개 지역은 2022년 대비 장애인교원 고용율이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은 하락하였으며 향상률의 폭은 -23.53% ~ 14.69%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세종 1개 지역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2023년 장애인교원 고용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상승한 세종은 향상율 또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서울은 대전과 함께 3년 연속 우수 수준이며, 광주와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강원도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하락한 지역 중 전남과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며,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인 지역 중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충북, 충남은 3년 연속 장애인교원 고용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4. 복지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과 같은 8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0.43점 ----- 전국 평균 42.07점 ----- 최고 52.23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인천, 세종, 경기	서울, 광주, 충남, 제주

2024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2.07점(최고 52.23점, 최하 30.43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53.71점(최고 73.78점, 최하 37.61점) 대비 19.39%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73.78/37.61) 대비 2024년에는 1.71배(52.23/30.43)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세종, 경기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강원,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52.23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30.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 연도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4.62	58.71	62.08	53.13	65.16	61.44	61.5	58.96	57.55	53.51	55.49	50.12	47.49	44.53	55.18	51.51	63.31	56.72
2023	68.23	51.00	53.80	56.12	53.27	58.55	49.17	53.64	68.37	44.83	44.74	58.15	47.47	37.61	47.58	46.77	73.78	53.71
2024	52.23	41.79	41.86	44.64	49.53	39.77	41.81	45.86	43.08	35.35	33.93	50.10	39.24	30.43	35.45	38.93	51.14	42.07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3.45	-18.06	-22.19	-20.46	-7.02	-32.08	-14.97	-14.50	-36.99	-21.15	-24.16	-13.84	-17.34	-19.09	-25.49	-16.76	-30.69	-19.38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23년 대비 모든 지역은 하락하였다. 광주의 하락 폭은 -7.02%로 가장 작았고, 경기 지역은 -36.99%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없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2개 지역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경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광주는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충남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과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경기도는 2023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대구,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산, 울산, 전북,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1)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16% ----- 전국 평균 3.80% ----- 최고 4.75%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전남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강원, 제주	부산, 광주, 전북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수준은 평균 3.80%(최고 4.75%, 최하 3.16%)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북이 4.75%로 가장 높고, 서울이 3.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3.73% 대비 1.88%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5배(4.75/3.16)로 2023년의 1.48배(4.55/3.07)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수는 부산, 광주,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인천, 강원, 제주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32	4.77	4.41	4.20	4.60	3.82	3.59	3.82	3.56	4.65	3.85	3.78	4.82	3.98	4.09	3.87	4.42	4.09	
2023	3.07	4.25	3.88	3.97	4.53	3.56	3.32	3.29	3.24	4.00	3.50	3.46	4.55	3.43	3.75	3.62	4.02	3.73	
2024	3.16	4.29	3.94	3.98	4.52	3.65	3.32	3.28	3.36	4.21	3.62	3.55	4.75	3.46	3.77	3.73	3.97	3.8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유지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2.93	0.94	1.55	0.25	-0.22	2.53	0.00	-0.30	3.70	5.25	3.43	2.60	4.40	0.87	0.53	3.04	-1.24	1.88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광주, 세종, 제주																		

2023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3.73%였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3.80%로 조사되어, 2023년 대비 1.88%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상승하였고, 광주, 세종,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2023년 대비 1.24%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으로 5.25%가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없으며, 광주, 세종,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하였다.

경북은 2023년 양호에서 2024년 보통으로 등급이 하락하였고, 전남은 보통에서 분발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반면 등급이 상향된 지역은 없었다. 서울, 울산, 세종, 경기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은 2년 연속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45% ----- 전국 평균 4.74% ----- 최고 8.1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북	서울, 대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수준은 평균 4.74%(최고 8.12%, 최하 3.45%)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4.65% 대비 1.94%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35

배(8.12/3.45)로 2023년의 8.22배(8.47/1.03)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구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북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세종, 경기, 제주 4개 지역이고, 분발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12%로 가장 높고, 전남이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64	4.83	5.84	3.60	5.12	3.92	4.29	3.40	4.00	2.72	4.04	3.55	3.87	3.45	3.42	4.17	3.33	4.13
2023	8.47	5.67	6.98	4.31	4.90	4.59	5.09	4.10	4.34	3.77	1.03	4.09	4.06	3.87	5.04	3.97	4.83	4.65
2024	8.12	5.17	7.17	4.31	4.82	4.77	4.77	4.55	4.10	4.03	3.96	3.83	4.00	3.45	5.12	3.91	4.55	4.74
2023 대비	하락	하락	상승	유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4.13	-8.82	2.72	0.00	-1.63	3.92	-6.29	10.98	-5.53	6.90	284.47	-6.36	-1.48	-10.85	1.59	-1.51	-5.80	1.94
3년 연속 상승	대구, 대전, 강원, 경북																	
3년 연속 하락	광주, 경남																	

2024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평균은 4.74%로, 2023년 4.65%에 비해 1.9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이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2023년 대비 10.85%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284.47%나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대구, 대전, 강원, 경북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광주와 경남이었다.

제주는 2023년 조사에서 양호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대전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과 대구는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 광주, 울산, 경북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충북,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0.42% ----- 전국 평균 0.87% ----- 최고 1.4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전북	제주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수준은 평균 0.87%(최고 1.41%, 최하 0.42%)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0.87% 대비하여 유지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38배(1.41/0.42)로 2023년의 3.48배(1.43/0.4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제주 1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충북, 전북 3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1.41%로 가장 높고, 세종과 전남이 0.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0	1.52	1.11	1.42	1.54	1.21	0.79	0.82	0.98	0.81	0.99	1.29	0.66	0.66	1.34	0.96	1.55	1.12
2023	1.20	0.68	0.69	1.43	1.14	0.68	1.14	0.61	1.22	0.43	0.69	1.43	0.79	0.41	0.48	0.53	1.20	0.87
2024	1.35	0.60	0.69	1.36	1.36	0.56	1.20	0.42	1.20	0.49	0.71	1.41	0.76	0.42	0.46	0.59	1.13	0.87
2023 대비	상승	하락	유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유지
향상률	12.50	-11.76	0.00	-4.90	19.30	-17.65	5.26	-31.15	-1.64	13.95	2.90	-1.40	-3.80	2.44	-4.17	11.32	-5.83	0
3년 연속 상승	울산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경북, 제주																	

2024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평균은 0.87%로, 2023년과 동일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 상승하였고,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2023년 대비 31.15%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로 19.30%가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울산 1곳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경북, 제주였다.

부산과 대전은 2023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광주와 울산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이었고, 광주, 울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분발 등급과 보통 등급에 2년 연속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4)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6,283원 ----- 전국 평균 149,979원 ----- 최고 448,061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경북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은 평균 149,979원(최고 448,061원, 최하 56,283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152,999원 대비 -1.97%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7.96배(448,061/56,283)로 2023년의 5.48배(406,762/74,156)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경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48,06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56,283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30,816	106,154	119,945	135,914	128,296	131,962	231,546	109,163	171,923	129,112	115,898	141,091	115,491	162,747	153,107	162,802	131,030	139,823
2023	141,756	139,171	74,156	153,589	85,436	145,775	170,374	157,851	130,924	140,742	111,827	145,562	140,085	167,584	145,697	143,677	406,762	152,999
2024	74,712	130,400	56,283	161,019	140,648	134,708	166,264	151,535	104,476	141,162	107,734	201,433	141,809	138,148	75,071	176,178	448,061	149,979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47.30	-6.30	-24.10	4.84	64.62	-7.59	-2.41	-4.00	-20.20	0.30	-3.66	38.38	1.22	-17.56	-48.47	22.62	10.15	-1.97
3년 연속 상승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제주																	
3년 연속 하락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북																	

2023년 152,999원에서 2024년에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평균 지급액이 149,979원으로 -1.97% 하락하였다.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가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광주의 상승 폭이 64.62%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북이었다.

광주, 충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충남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은 2023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경북의 하락 폭이 -48.47%로 가장 컸다. 특히 대구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면서도 3년 연속 하락하였기 때문에 1인당 장애아동수당을 대폭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33,914원 ----- 전국 평균 333,935원 ----- 최고 442,737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충북	서울,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제주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은 평균 333,935원(최고 442,737원, 최하 133,914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314,878원 대비 16.95%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30배(442,737/133,914)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도 지역간 격차가 2.38배(418,278/175,069)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충남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10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충북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42,737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133,91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02,451	148,172	151,695	158,184	163,499	166,426	95,178	384,987	202,948	123,229	122,985	122,873	199,570	154,368	170,364	185,145	150,777	164,874	
2023	353,163	335,663	328,421	316,822	175,089	329,280	300,626	239,306	385,107	256,023	331,916	325,015	330,370	311,718	302,860	313,311	418,278	314,878	
2024	254,406	353,645	252,686	358,639	384,938	365,840	343,883	339,118	373,870	342,457	133,914	389,522	375,309	336,660	299,086	330,104	442,737	368,247	
2023 대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27.96	5.36	-23.06	13.20	119.91	11.11	14.39	41.71	-2.92	33.76	-59.65	19.85	13.60	8.00	1.24	5.36	5.85	16.95	
3년 연속 상승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3년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전국 평균은 314,878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368,247원으로 16.95%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하여 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북은 하락하였고, 부



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상승하였다. 특히 광주는 119.91%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충북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광주와 세종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경북과 경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0.0000% ----- 전국 평균 0.0052% ----- 최고 0.016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부산, 광주, 경기, 경남	서울, 충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수준은 평균 0.0052%(최고 0.0161%, 최하 0.000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0.0038% 대비 36.84배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0.0161배(0.0161/0.0000)로 2023년의 0.0123배(0.0123/0.000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충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경기,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0.0161%로 가장 높고, 울산, 세종, 제주가 0.00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수준

구분	(단위: %)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0.0120	0.0082	0.0117	0.0024	0.0045	0.0101	0.0201	0.0000	0.0050	0.0083	0.0087	0.0031	0.0000	0.0035	0.0042	0.0026	0.0000	0.0061
2023	0.0120	0.0037	0.0058	0.0047	0.0000	0.0123	0.0000	0.0000	0.0038	0.0000	0.0036	0.0103	0.0024	0.0000	0.0021	0.0041	0.0000	0.0038
2024	0.0131	0.0073	0.0052	0.0045	0.0088	0.0050	0.0000	0.0000	0.0063	0.0036	0.0034	0.0161	0.0024	0.0023	0.0021	0.0080	0.0000	0.0052
2023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유지	유지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유지	상승	유지	상승	유지	상승
향상률	9.17	97.30	-10.34	-4.26	-	-59.35	-	-	65.79	-	-5.56	56.31	-	-	0	95.12	-	36.84
3년 연속 상승	충남, 경남																	
3년 연속 하락	대구, 충북																	

2024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평균은 0.0052%로, 2023년 0.0038%에 비해 36.8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은 상승하였고, 대구, 인천, 대전, 충북은 하락하였다. 부산이 97.30%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대전이 -59.35%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충남,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 충북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은 2023년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광주는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울산, 세종, 전남, 제주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이고, 강원, 충북, 전북, 경북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 (7)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80,169원 ----- 전국 평균 1,143,304원 ----- 최고 3,080,229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서울, 대전, 울산, 경남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세종, 제주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1,143,304원(최고 3,080,229원, 최하 580,169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1,017,744원 대비 12.34%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30배(3,080,229/580,169)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4.93배(2,208,895/447,164)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경기, 충북, 경북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전, 울산,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3,080,229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580,169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81,464	605,309	679,405	674,346	1,177,977	702,840	796,528	914,706	940,496	892,746	958,521	733,944	542,243	431,102	787,818	619,620	1,629,948	821,707
2023	882,431	663,392	733,553	719,200	1,309,999	777,530	747,606	1,633,399	2,238,855	1,066,222	1,066,038	745,660	574,997	447,164	934,662	755,364	2,077,399	1,017,744
2024	994,419	688,799	834,661	730,665	1,219,007	883,298	1,001,165	3,000,229	1,229,751	706,551	1,204,440	791,774	671,663	500,169	1,182,493	905,663	2,882,008	1,143,304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5.30	6.95	13.78	1.61	-9.10	14.88	37.80	87.89	-44.33	-32.51	16.25	6.18	16.81	29.74	22.58	19.92	30.97	12.34
3년 연속 상승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전국 평균은 1,143,304원으로 2023년 1,017,744 대비 12.3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광주, 경기, 강원 3곳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4.33%(경기)에서 87.89%(세종)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2곳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세종과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이고, 경북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했다. 광주, 충북, 경기도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산, 인천, 전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8)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55% ----- 전국 평균 6.88% ----- 최고 19.3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제주	세종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수준은 평균 6.88%(최고 19.31%, 최하 3.55%)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6.52% 대비 5.52%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43배(19.31/3.5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3.40배(11.38/3.34)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제주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19.31%로 가장 높고, 전남이 3.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84	5.12	6.72	4.95	7.44	10.01	4.33	10.52	5.43	6.51	6.48	3.89	4.20	3.14	5.56	4.70	7.47	6.14
2023	7.78	5.18	6.62	5.33	7.66	7.50	4.86	11.27	11.38	6.82	6.40	3.89	4.09	3.34	5.76	5.58	7.37	6.52
2024	8.20	6.10	7.01	5.38	3.77	8.04	7.83	19.31	5.89	4.02	6.89	4.69	4.32	3.55	5.99	5.85	10.17	6.88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5.40	17.76	5.89	0.94	-50.78	7.20	61.11	71.34	-48.24	-41.06	7.66	20.57	5.62	6.29	3.99	4.84	37.99	5.52
3년 연속 상승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																	
3년 연속 하락	-																	

2023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은 6.88%로, 2022년 6.52%에 비해 5.52% 상승하였다. 가장 하락 폭이 큰 지역은 광주로 -50.78%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광주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71.34% 상승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다. 충남, 전북, 전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됨에 따라 이 세 지역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야 한다. 또 부산, 인천, 충남,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지역도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는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구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과 같은 7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0.27점 ----- 전국 평균 45.12점 ----- 최고 64.94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인천, 경기, 제주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전남	대구, 대전, 전북

2024년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5.12점이고, 최고점수는 64.94점, 최하점수는 30.27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 평균은 2022년 46.29점(최고 64.68점, 최하 33.27점) 대비 1.86%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94배(64.68/33.27) 대비 2024년에는 2.14배(64.94/30.27)로 커짐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구, 대전,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전남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경기, 제주 3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64.94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이 30.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연도별 보건 및 자립 지원 수준>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3.94	38.08	51.00	46.58	47.73	64.68	42.64	54.61	46.29	33.27	36.63	54.84	39.29	42.56	35.86	51.90	47.11	46.29
2024	47.47	48.34	64.94	43.64	53.71	57.05	37.60	54.03	44.12	30.27	33.08	37.19	59.24	49.08	36.67	36.70	39.15	45.43
2022 대비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11.99	26.94	27.33	-6.31	12.53	-11.80	-11.82	-1.06	-4.69	-9.02	-9.69	-32.18	50.78	15.32	2.26	-29.29	-16.90	-1.86

2022년 대비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은 상승했으며,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주는 하락하였다. 대구가 27.33%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충남은 -32.18%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부산과 전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각각 양호와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으며, 전남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인천과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충남과 경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울산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울산, 경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1)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48,712원 ----- 전국 평균 136,280원 ----- 최고 436,233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대구, 세종, 경북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평균 136,280원(최고 436,233원, 최하 48,712원)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383,658원 대비 -64.48%로 대폭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9.5배(436,233/48,712)로 2022년의 392.05배(3,183,845/8,12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2022년도에는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 관련하여 지역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었다.

우수는 대전, 전북,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1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세종, 경북 3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1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436,233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48,712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1,691	123,519	333,239	217,422	96,737	3,183,845	94,471	122,875	140,533	230,494	8,121	436,233	204,419	138,557	111,136	132,027	833,806	383,658
2024	51,791	70,180	128,247	87,511	188,550	436,233	91,343	106,709	59,775	49,033	48,712	66,084	343,916	338,913	114,639	78,772	91,343	136,280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36.60	-43.18	-64.70	-59.75	94.91	-86.30	-3.31	-13.16	-57.47	-78.73	499.83	-85.32	68.24	91.67	3.15	-40.34	-88.64	-64.48

2022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 평균은 383,658원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136,280원으로 조사되어, 2022년 대비 64.48%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은 상승하였고, 그 외 1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2022년 대비 -88.64%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499.83%가 상승하였다.

충남과 제주는 2022년 양호에서 2024년 분발로 등급이 크게 하락하였고, 전남은 분발에서 우수로 등급이 크게 상향하였다. 서울, 부산, 울산, 충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강원, 경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보조기기 지원 수준

### <보조기기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45점(1.15%, 6,564원) - 전국 평균 8.41점(5.99%, 42,516원) - 최고 13.52점(9.99%, 73,270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울산, 충남, 경남	세종, 강원, 충북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제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평균 8.41점(최고 13.52점, 최하 1.45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7.63점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9.32배(13.52/1.45)로 2022년의 2.59배(12.75/4.9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제주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강원, 충북 3개 지역이며, 분발은 서울, 울산, 충남, 경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13.52점으로 가장 높고, 충남이 1.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 연도별 보조기기 지원 수준

구분	(단위: %)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8.55	6.15	8.82	6.17	5.62	9.92	5.52	5.17	8.05	9.96	4.91	9.74	8.60	5.09	5.08	12.75	9.54	7.63
2024	1.77	11.28	13.52	11.05	9.31	11.12	4.34	7.68	9.46	6.06	6.53	1.45	10.33	13.17	9.37	7.35	9.19	8.41
2022 대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증감률	-79.30	83.41	53.29	79.09	65.66	12.10	-21.38	48.55	17.52	-39.16	32.99	-85.11	20.12	158.74	84.45	-42.35	-3.67	10.22

2024년 보조기기 지원 수준 평균은 8.41점으로, 2022년 7.63점에 비해 10.2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이 상승하였고, 서울, 울산, 강

원, 충남,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2022년 대비 -85.11%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84.45% 상승하였다.

경남은 2022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 충남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부산과 인천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대구, 대전, 경기, 전북,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인 울산은 비롯하여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충북은 보조기기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8.55% ----- 전국 평균 63.50% ----- 최고 68.4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북, 제주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남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대전, 울산, 세종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은 평균 63.50%(최고 68.42%, 최하 58.55%)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간 격차는 1.16배(68.42/58.55)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울산, 세종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북,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68.42%로 가장 높고, 제주가 58.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	-	-	-	-	-	-	-	-	-	-	-	-	-	-	-	-	-
2024	61.12	61.14	61.33	65.20	64.48	66.75	67.29	68.42	64.09	62.59	64.40	62.66	64.51	63.72	60.46	62.89	58.55	63.50
2022 대비	-	-	-	-	-	-	-	-	-	-	-	-	-	-	-	-	-	-
증감률	-	-	-	-	-	-	-	-	-	-	-	-	-	-	-	-	-	-

202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2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와의 비교는 생략하였다.



#### (4)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38점 ----- 전국 평균 5.79점 ----- 최고 8.72점  
 (3.55일, 321,429원) ----- (8.24일, 994,938원) ----- (12.76일, 1,722,222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충북, 전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대전, 세종, 충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은 평균 5.79점(최고 12.76일, 1,722,222원, 최하 3.55일, 321,429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간 격차는 2.57배(8.72/3.38)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세종,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충북, 전남 2개 지역이고, 분발은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8.72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4	6.23	6.42	5.86	6.88	3.96	7.33	3.68	8.72	6.55	4.45	4.74	8.26	4.47	4.60	6.92	5.99	3.38	5.79

(단위: 점)

2022년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자료 미제출)으로 분석하여 연도별 비교의 의미는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 (5)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4.53점 ----- 전국 평균 7.28점 ----- 최고 12.85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남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은 평균 7.28점(최고 12.85점, 최하 4.53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

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83배(12.85/4.53)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지역 간 격차가 2.08배(11.92/5.73)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광주, 충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광주가 12.85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이 4.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76	11.92	8.69	10.19	6.80	8.28	6.57	7.68	11.63	6.15	8.49	10.41	5.73	8.76	7.89	9.61	11.12	8.69
2024	9.64	7.87	8.56	6.97	12.85	8.10	4.77	5.56	6.71	4.53	5.72	10.36	6.74	6.80	4.71	6.65	7.28	7.28
2022 대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4.23	-33.98	-1.50	-31.60	88.97	-2.17	-27.40	-27.60	-42.30	-26.34	-32.63	-0.48	17.63	-22.37	-40.30	-30.80	-34.53	-16.23

2022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전국 평균은 8.69점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7.28점으로 -16.23% 하락하였다. 서울, 광주, 전북은 상승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42.30%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는 88.97%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경기와 제주는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광주는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북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639원 ----- 전국 평균 76,118원 ----- 최고 209,173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세종, 전북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76,118원(최고 209,173원, 최하 3,639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66,311원 대비 1.14배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7.48배(209,173/3,639)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게다가 2022년의 51.75배(229,864/4,44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세종,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광주 3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대전, 울산, 제주 4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209,173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이 3,639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29,864	42,714	114,677	81,355	115,067	26,762	68,738	67,726	32,334	4,441	8,694	91,600	30,993	92,840	6,723	26,817	65,918	66,311
2024	208,077	118,259	84,013	43,307	114,138	46,194	49,908	209,173	32,837	18,505	24,961	33,930	189,462	24,668	3,639	27,238	63,640	76,118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9.48	176.86	-26.74	-46.77	-0.79	80.08	-27.41	208.65	1.56	316.69	187.11	-62.96	511.31	-73.40	-6.87	1.57	-25.98	14.79

2024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평균은 76,118원으로, 2022년 66,311원에 비해 14.79%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은 상승하였고,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하락하였다. 전북이 511.31%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전남이 -73.40%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울산,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전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2년 분발 등급이고, 대전과 경기도 2년 모두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15원 ----- 전국 평균 76,118원 ----- 최고 421,338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광주	경기	대구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76,118원(최고 421,338원, 최하 315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115,356원에 비해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337.58배(421,338/315)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의 576.74배(879,532/1,525)와 비교해서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구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경기 1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광주 1개 지역이

고, 분발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421,338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이 315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920	2,406	145,682	7,636	7,324	427,715	3,708	879,532	125,706	1,525	6,786	283,544	9,908	12,280	6,313	19,036	7,050	115,356
2024	35,241	2,968	421,338	4,704	21,151	315	437	6,053	133,108	5,894	7,111	11,282	10,570	16,713	409	886	11,963	76,118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향상률	136.20	23.36	189.22	-38.40	188.79	-99.93	-88.21	-99.31	5.89	286.49	4.79	-96.03	6.68	36.32	-93.52	-95.30	69.69	-34.01

2024년 전국 평균은 76,118원으로 2022년 115,356원 대비 34.01%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0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그 외 7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99.93%(대전)에서 286.49%(강원) 사이로 나타났다.

대구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와 경기도는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2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서울과 광주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하였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 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과 같은 8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4.95점 ----- 전국 평균 49.87점 ----- 최고 81.06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제주

2024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이고, 최고점수는 81.06점, 최하점수는 34.95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81.06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34.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2.11	50.95	47.51	54.30	66.02	69.30	66.07	58.23	59.55	67.80	56.77	53.91	48.76	54.66	51.21	54.83	89.29	60.07
2024	61.48	54.52	34.95	42.81	60.53	58.72	56.66	45.98	41.83	48.62	46.14	45.47	42.23	44.42	40.26	42.15	81.06	49.87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14.74	7.01	-26.44	-21.16	-8.32	-15.27	-14.24	-21.04	-29.76	-28.29	-18.72	-15.66	-13.39	-18.73	-21.38	-23.13	-9.22	-16.98

2024년 전국 평균은 49.87점(최고 81.06점, 최하 34.95점)으로 2022년 60.07점(최고 89.29점, 최하 47.51점) 대비 -16.98%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87배(89.29/47.51) 대비 2024년에는 2.31배(81.06/34.95)로 커짐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부산만이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부산의 상승 폭은 7.01%이고, 경기도는 -29.76%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부산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강원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경기와 경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대구, 전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0.46개소 ----- 전국 평균 1.09개소 ----- 최고 1.82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광주, 울산, 전북, 경남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제주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은 평균 1.09개소(최고 1.82개소, 최하 0.46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5배(1.82/0.46)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89배(1.36/0.47)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부산,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7개 지역이며, 보통은 광주, 울산, 전북,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세종, 경기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부산이 1.82개소로 가장 높고, 대구가 0.46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30	0.96	0.47	0.67	1.00	1.10	0.78	0.79	0.66	1.08	1.23	1.26	0.98	1.29	1.15	1.16	1.36	1.01
2024	1.30	1.82	0.46	0.66	1.01	1.12	0.97	0.77	0.67	1.09	1.24	1.27	1.08	1.32	1.18	0.95	1.63	1.09
2022 대비	유지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	89.58	-97.87	-1.49	-101.00	1.82	-124.36	-2.53	-101.52	0.93	-100.81	0.79	-110.20	2.33	-102.61	-18.10	-119.65	7.92

2022년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평균은 1.01개소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1.09개소로 조사되어, 2022년 대비 7.9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은 상승하였고, 그 외 1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022년 대비 -124.36%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89.58%가 상승하였다.

서울, 충북, 충남, 전남은 2022년 우수에서 2024년 양호로 등급이 하락하였고, 부산은 보통에서 우수로 등급이 상향하였다. 대구, 인천, 경기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세종, 광주, 울산, 전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6.86개소 ----- 전국 평균 13.47개소 ----- 최고 37.31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직업재활시설 수준은 평균 13.47개소(최고 37.31개소, 최하 6.86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43배(37.31/6.86)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87배(19.07/ 6.64)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제주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7개 지역이며, 분발은 인천, 충남, 전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37.31개소로 가장 높고, 충남이 6.86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2.90	9.19	11.84	9.65	12.38	13.47	12.02	19.07	10.07	15.92	9.41	7.40	7.50	6.64	10.36	11.02	9.39	11.13
2024	13.72	10.87	12.03	10.03	14.63	15.83	20.47	37.31	11.74	10.27	10.33	6.86	9.29	7.12	11.12	13.43	13.98	13.4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36	18.28	1.60	3.94	18.17	17.52	70.30	95.65	16.58	-35.49	9.78	-7.30	23.87	7.23	7.34	21.87	48.88	21.02

2024년 직업재활시설 수준 평균은 13.47개소로, 2022년 11.13개소에 비해 21.0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상승하였고, 강원, 충남은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으로 2022년 대비 -35.49%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95.65% 상승하였다.

강원은 2022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대구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제주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이와 달리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인 충남, 전북, 전남을 비롯하여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인천,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은 직업재활시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34개소 ----- 전국 평균 10.73개소 ----- 최고 20.05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경북, 경남	충북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울산, 충남, 제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평균 10.73개소(최고 20.05개소, 최하 5.34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75배(20.05/5.34)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98배(19.29/ 6.46)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울산, 충남,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충북 1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울산이 20.05개소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5.34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9.41	6.46	12.88	8.21	9.60	11.45	19.29	11.03	8.21	17.79	6.64	8.39	8.63	10.80	6.96	7.86	16.81	10.61
2024	6.33	12.31	6.59	7.16	11.97	11.34	20.05	6.18	5.34	14.42	8.96	16.19	10.98	12.24	7.40	7.36	17.61	10.73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증감률	-32.73	90.56	-48.84	-12.79	24.69	-0.96	3.94	-43.97	-34.96	-18.94	34.94	92.97	27.23	13.33	6.32	-6.36	4.76	1.13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평균 수준은 2022년 10.61개소에서 2024년에는 10.73개소로 1.13% 상승하였다.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2022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충남의 상승 폭이 92.97%로 가장 컸다. 충남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부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경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대구의 하락 폭이 -48.84%로 가장 컸다. 특히 인천, 경기, 경북, 경남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며, 서울, 충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4)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49개소 ----- 전국 평균 3.73개소 ----- 최고 8.82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서울, 충북	광주, 대전, 제주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평균 3.73개소(최고 8.82개소, 최하 1.49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91배(8.82/1.49)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5.32배(7.88/1.48)에 비해 격차가 더 커졌다.

우수는 광주,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충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8.82개소로 가장 높고, 충남이 1.49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57	2.32	2.51	3.30	7.88	7.86	3.31	1.58	2.99	3.34	5.52	1.56	1.89	2.00	1.48	3.32	6.24	3.69
2024	5.21	2.11	2.45	3.09	7.93	8.82	3.31	1.55	3.04	3.38	5.35	1.49	1.77	1.83	1.68	3.39	7.04	3.73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46	-9.05	-2.39	-6.36	0.63	12.21	-	-1.90	1.67	1.20	-3.08	-4.49	-6.35	-8.50	13.51	2.11	12.82	1.08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2022년 평균 3.69개소에서 2024년에는 3.73개소로 1.08% 상승하였다.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가 2022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경북의 상승 폭이 13.51%로 가장 컸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부산의 하락 폭이 -9.05%로 가장 컸다. 모든 지역이 2022년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5.45명 ----- 전국 평균 117.61명 ----- 최고 299.34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울산	서울, 제주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117.61명(최고 299.34명, 최하 55.45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39배(299.34/55.4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의 3.28배(175.72/53.42)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서울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대전, 울산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7개 지역이고, 분발은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299.34명으로 가장 높고, 경남이 55.4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23.75	70.39	53.42	88.80	93.24	145.68	112.80	89.04	128.47	116.40	73.59	74.95	74.89	78.07	61.80	56.01	175.72	95.12
2024	299.34	108.28	110.63	106.42	149.18	162.51	123.19	64.89	63.40	99.18	100.70	82.01	90.87	87.64	70.31	55.45	225.36	117.61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41.89	53.83	107.09	19.84	60.00	11.55	9.21	-27.12	-50.65	-14.79	36.84	9.42	21.34	12.26	13.77	-1.00	28.25	23.64

2022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전국 평균은 95.12명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117.61명으로 23.64% 상승하였다. 세종, 경기, 강원, 경남은 하락하였고, 그 외 13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은 141.89%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경기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79명 ----- 전국 평균 2.62명 ----- 최고 3.90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제주

이용자 10명 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2.62명(최고 3.90명, 최하 1.79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17배(3.90/1.79)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2022년의 1.94배(3.32/1.71)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광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3.90명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1.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34	1.95	1.72	2.27	2.65	1.71	2.48	2.22	3.15	2.42	2.71	2.76	2.04	2.30	2.21	2.40	3.32	2.39
2024	2.39	1.99	1.79	2.66	3.88	2.35	2.49	2.56	3.01	2.77	2.52	2.42	2.43	2.50	2.33	2.48	3.90	2.62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2.14	2.05	4.07	17.18	46.42	37.43	0.40	15.32	-4.44	14.46	-7.01	-12.32	19.12	8.70	5.43	3.33	17.47	9.62

2024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평균은 2.62명으로, 2022년 2.39명에 비해 9.6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경기, 충북, 충남은 하락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광주가 46.42%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충남이 -12.32%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는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광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2년 모두 분발 등급이고, 서울,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북도 2년 모두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6.29명 ----- 전국 평균 7.59명 ----- 최고 10.61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부산

이용자 1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7.59명(최고 10.61명, 최하 6.29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1.68배(10.61/6.29)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1.36배(8.01/5.86)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부산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부산이 10.61명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6.2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47	7.20	6.79	7.08	7.62	7.20	7.76	7.13	6.79	6.41	5.86	6.94	7.26	6.90	7.40	7.15	8.01	7.12
2024	8.03	10.61	6.75	6.80	8.16	7.59	7.93	7.21	7.40	7.04	6.29	7.17	7.66	6.74	7.55	7.56	8.54	7.59
2022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7.50	47.36	-0.59	-3.95	7.09	5.42	2.19	1.12	8.98	9.83	7.34	3.31	5.51	-2.32	2.03	5.73	6.62	6.60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전국 평균은 7.59명으로 2022년 7.12명 대비 6.60%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인천, 전남 3개 지역이 하락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3.95%(인천)에서 47.36%(부산) 사이로 나타났다.

부산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서울, 대전, 울산, 전북, 제주는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충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대구,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전남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8)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85% ----- 전국 평균 4.87% ----- 최고 17.0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대전, 울산, 전남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수준은 평균 4.87%(최고 17.02%, 최하 1.85%)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9.2배(17.02/1.8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8.53배(13.66/1.60)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전, 울산, 전남 3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17.02%로 가장 높고, 충북이 1.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연도별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16	4.80	2.19	5.77	1.60	2.72	3.89	2.62	4.82	2.94	1.63	2.77	1.70	3.24	2.47	2.25	13.66	3.95
2024	9.73	5.60	2.50	7.02	2.51	4.37	4.41	2.87	6.36	3.31	1.85	3.24	2.12	3.99	2.60	3.31	17.02	4.8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증감률	19.24	16.67	14.16	21.66	56.88	60.66	13.37	9.54	31.95	12.59	13.50	16.97	24.71	23.15	5.26	47.11	24.60	23.29

2022년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은 4.87%로, 2022년 3.95%에 비해 23.29% 상승하였다. 모든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은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60.66% 상승하여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그외 대부분 지역은 기존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주는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다.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8개 지역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야 한다. 또 대전, 울산, 강원, 전남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값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지역도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4)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과 같이 5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최하 20.61점	평균 32.80점		최고 80.50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남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서울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수준>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평균 점수는 32.80점(최고 80.50점, 최하 20.6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배(80.50/20.61)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의 2.5배(67.91/27.39)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서울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대전, 세종 4개 지역이며, 보통은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0.50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이 20.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9.67	69.53	67.93	62.83	63.09	73.16	56.51	67.04	59.35	57.86	64.58	52.14	54.48	57.43	57.04	62.33	75.14	62.97
2023	60.60	44.50	56.21	34.14	46.86	48.59	47.51	46.20	34.78	33.07	27.39	32.96	37.34	46.02	37.62	32.22	67.91	43.17
2024	80.50	42.18	40.70	25.74	32.68	40.97	29.74	34.32	23.73	30.39	24.31	30.02	20.61	22.96	23.78	29.11	25.95	32.80
2023 대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32.84	-5.21	-27.59	-24.60	-30.26	-15.68	-37.40	-25.71	-31.77	-8.10	-11.24	-8.92	-44.80	-50.11	-36.79	-9.65	-61.79	-24.02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4년 전국 평균은 32.80점(최하 20.61점, 최고 80.50점)으로 2023년 43.17점(최하 27.39점, 최고 37.91점) 대비 24.02%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2.5배(67.91/27.39)에서 2024년에는 3.9배(80.50/20.61)로 커짐에 따라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으며, 그 중 제주가 61.79%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 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고, 강원, 충남, 경남은 분발에서 보통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대구는 작년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제주는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광주, 울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전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전북, 경북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인천, 경기, 충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수준>

최하 89.80%	평균 293.40%			최고 1,653.8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제주	서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의무 수준에 대비한 실제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최하 89.80%(인천)이고, 최고 1,653.82%(서울)이며, 전국 평균은 293.4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219.15% 대비 33.88%로 대폭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8.4배(1,653.82/89.80)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6.9배(565.45/81.50)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1개 지역만 있었고, 양호 등급에는 부산, 울산, 제주 3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대구, 광주, 대전 3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개 지역이 속하였다.

<연도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7.92	320.06	209.22	190.91	172.87	362.11	164.44	142.86	157.71	115.43	127.04	98.70	97.41	135.27	112.17	132.27	169.12	167.97
2023	565.45	474.88	232.87	81.50	274.42	250.75	372.22	109.09	163.20	117.44	137.22	111.26	119.40	193.78	97.24	107.27	317.65	219.15
2024	1,653.82	579.62	242.66	89.80	263.59	267.91	385.22	145.45	163.20	141.03	118.44	107.20	112.00	112.86	99.32	119.48	366.18	293.4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92.48	22.06	4.20	10.18	3.34	6.84	3.49	33.33	0.00	20.09	-13.69	-3.65	-6.20	-41.76	2.14	11.38	15.28	33.88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293.40%로, 2023년 219.15%, 2022년 167.97%에 비해 3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3년에 비해 전국 평균은 33.88%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192.48%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전남은 -41.76%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2023

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와 같은 12개 지역이었고, 하락한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지역이었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서울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구, 광주,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 (2) 저상버스 확보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

최하 13.85%	평균 31.80%	최고 65.78%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강원, 충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북, 경남	서울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지역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최하 13.85%(울산), 최고 65.78%(서울), 전국 평균 31.8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26.28% 대비 21.0%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4.75배 (65.78/13.85)로 2023년의 6.21배(63.39/10.2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1개 지역만 포함되었으며, 양호 등급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북, 경남 8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강원, 충북 2개의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6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저상버스 확보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9.66	28.92	39.71	27.63	29.02	33.40	12.15	37.31	26.15	27.99	50.54	7.62	20.16	16.82	18.00	37.24	17.83	28.83
2023	63.39	31.03	38.98	15.97	32.53	37.73	11.34	37.40	24.67	23.75	20.24	10.20	19.88	18.64	16.82	25.37	18.82	26.28



2024	65.78	36.07	46.49	18.69	39.44	40.39	13.85	41.47	33.30	31.74	25.55	16.77	38.78	22.22	17.49	32.97	19.66	31.8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3.77	16.24	19.27	17.03	21.24	7.05	22.13	10.88	34.98	33.64	26.24	64.41	95.07	19.21	3.98	29.96	4.46	21.00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1.80%로 2023년 26.28%에 비해 21.00% 상승하였다. 모든 지역이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전북의 상승 폭이 95.07%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즉 모든 지역별로 저상버스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은 2년 연속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경기, 전북, 경남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전남, 제주는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인천, 울산, 충남,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분발 등급에 속한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은 작년에 비해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최하 18.94%	평균 85.06%			최고 100%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세종, 전북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공기관 건축물 중 배리어프리 본인증에 한하여 인증을 받은 누적 건축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조사 결과, 지자체의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국 평균은 85.06%로 나타났으며, 최고 100%(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이며, 최하 18.94%(세종)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24.10% 대비 2.5배 향상하였다. 또 2024

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28배(100/18.94)로 2023년의 110.75배(58.70/0.53)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9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은 충남, 경북 2개 지역이며, 보통 등급은 서울, 부산, 경기, 충북 4개 지역이고, 분발 등급은 세종, 전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	-	-	-	-	-	-	-	-	-	-	-	-	-	-	-	-	-
2023	10.27	5.43	33.88	23.79	38.83	32.95	36.46	0.53	13.47	16.71	8.81	16.62	27.88	50.00	18.95	16.34	58.70	24.10
2024	78.15	82.59	100	100	100	94.24	100	18.94	71.26	100	76.84	91.51	45.83	100	86.61	100	100	85.06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60.95	1420.99	195.16	320.34	157.53	186.01	174.27	3473.58	429.03	498.44	772.19	450.60	64.38	100.00	357.04	512.00	70.36	252.95

2024년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85.06%로 2023년 24.10%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모든 지역이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부산의 상승 폭이 1,420%로 가장 컸다. 22년의 경우 지자체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하락과 관련된 분석은 할 수 없었다.

전남과 제주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인천, 강원, 경남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또 충남, 경북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충북은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전북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세종 지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최하 90.52%

평균 617.27%

최고 1,033.27%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전북, 제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지방자치단체 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문화·여가 활동(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 지원 장애인 연인원을 조사하여 장애인문화·체육·여가 활동 지원사업 참여 비율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올해 조사 결과, 전국 평균은 617.27%로 나타났으며, 최고 1,033.27(대전)이며, 최하 90.52%(전북)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447.02% 대비 38.1% 상승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1.41배(1,033.27/90.52)로 2023년의 2.12배(718.79/338.18)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지역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울산, 충남 2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9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전북, 제주 2개 지역이 속하였다.

<연도별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	-	-	-	-	-	-	-	-	-	-	-	-	-	-	-	-	-
2023	460.50	347.66	718.79	434.16	443.84	435.93	437.71	524.63	357.79	382.17	371.49	391.79	504.84	351.83	366.43	338.18	386.22	447.02
2024	912.79	922.03	902.04	499.70	433.53	1,033.27	619.38	575.14	393.28	582.07	425.91	634.79	90.52	360.96	388.97	564.14	115.26	617.27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98.22	165.21	25.49	15.10	-2.32	137.03	41.50	9.63	9.92	52.31	14.65	62.02	-82.07	2.60	6.15	66.82	-70.16	38.09

2024년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617.27%로 2023년 447.02%에 비해 38.1% 상승하였다. 광주, 충남, 제주 지역만 2023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부산의 상승 폭이 165.21%로 가장 컸다. 22년의 경우 지자체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하락과 관련된 분석은 할 수 없었다.

대구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인천과 광주는 2년 연속 보통 등급이었고, 제주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서울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부산

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전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전북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년 연속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해 있는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

최하 3,394원	평균 13,743원	최고 47,551원	
분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경남	보통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양호 세종, 충남, 경북, 제주	우수 서울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장애인 인구수에 대비한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지원 예산총액을 조사하여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정보통신접근 지원 예산액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13,743원으로 전년도 7,982원에 비해 72.17% 향상되었다. 최고 수준은 47,551원(서울)이었고, 최저 수준은 3,394원(경기)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4.01배(47,551/3,394)로 2023년의 16.87배(22,441/1,33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서울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은 세종, 충남, 경북, 제주 4개 지역이며, 보통 등급은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7개 지역이고, 분발 등급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경남 5개 지역이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337	3,097	5,444	5,466	7,205	2,523	6,292	13,343	3,140	3,792	564	8,231	4,397	8,465	9,580	4,647	42,163	7,687
2023	4,585	6,993	4,801	6,968	1,330	4,974	6,736	18,225	7,628	5,873	3,273	10,604	3,840	7,161	13,993	6,263	22,441	7,982
2024	47,551	8,144	6,351	13,571	12,366	5,214	12,426	20,071	3,394	9,941	9,782	19,409	9,616	9,933	15,753	7,418	22,684	13,743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937.10	16.46	32.28	94.76	829.77	4.83	84.47	10.13	-55.51	69.27	198.87	83.03	150.42	38.71	12.58	18.44	1.08	72.17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13,743원으로 2023년 7,982원에 비해 72.17% 상승하였다.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이 937.10%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즉 모든 지역별로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향상하였고, 세종과 제주는 2023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충남과 경북은 2년 연속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광주, 충북, 전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약간 향상되었다. 하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12개 지역은 2년 연속 평균 이하 등급이기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과 같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최하 28.97점	평균 39.65점		최고 60.00점
<b>분발</b>	<b>보통</b>	<b>양호</b>	<b>우수</b>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남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기, 강원, 경북	서울, 대전, 제주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평균 점수는 39.65점(최고 60.00점, 최하 28.97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7배(60.00/28.97)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 조사의 2.78배(49.19/17.68)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에는 경기, 강원, 경북 3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6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남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60.00점으로 가장 높고, 인천이 28.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0.44	24.99	31.76	17.68	31.87	39.03	49.19	31.67	26.96	32.44	27.32	30.97	39.00	36.11	37.71	35.05	40.44	32.51
2024	60.00	29.07	32.41	28.97	39.32	51.82	37.99	35.45	40.03	46.27	36.01	30.15	39.54	36.90	42.12	34.05	53.87	39.65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93.54	16.33	2.05	63.86	23.38	32.77	-22.77	11.94	48.48	42.63	31.81	-2.65	1.38	2.19	11.69	-2.85	33.21	21.96

2023년에는 이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과 비교하여 향상율을 분석하였고, 3년 동안의 경향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2024년 39.65점으로 2022년 32.51점에 비해 21.96% 상승하였다. 울산, 충남, 경남의 경우 2022년 대비 하락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상승하였다.

서울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대전, 제주는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경기, 강원은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울산은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전북, 전남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경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대구, 충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부산, 인천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최하 33.16명

평균 58.43명

최고 103.18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제주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경남	서울, 광주,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은 평균 58.43명으로 2022년의 55.07명에 비해 향상되었다. 최고 수준은 강원 103.18명, 최하 수준은 울산 33.16명이었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11배(103.18/33.16)로 2022년의 35.50배(117.51/3.31)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강원, 전남, 경북 3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광주, 충남, 전북 4개 지역, 보통 등급에는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경남 5개 지역, 분발 등급에는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제주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31	69.99	77.55	37.87	45.32	41.30	36.22	40.25	37.82	66.92	49.59	59.36	117.51	87.15	76.12	47.34	42.62	55.07
2024	62.38	56.16	44.06	48.83	61.37	51.78	33.16	44.16	42.14	103.18	50.85	59.11	64.61	85.72	89.52	58.38	37.82	58.43
2022 대비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1784.59	-19.76	-43.19	28.94	35.41	25.38	-8.45	9.71	11.42	54.18	2.54	-0.42	-45.02	-1.64	17.60	23.32	-11.26	6.10

2024년 평균 수준은 58.43명으로 2022년의 55.07명에 비해 6.10%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10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7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3.1%에서 1,784.59% 사이로 나타났다.

전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고, 강원과 경북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광주는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전북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부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울산, 세종, 경기, 제주는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인천, 대전, 충북, 경남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최하 3.52점	평균 5.04점		최고 9.26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경기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은 평균 5.04점(최고 9.26점, 최하 3.52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5.32점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63배(9.26/3.52)로 2022년의 6.00배(12.06/2.01)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경기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12	3.51	4.41	3.28	4.38	5.86	6.33	2.01	5.88	6.03	7.38	6.26	5.62	6.38	4.99	12.06	4.80	5.67
2024	6.68	4.40	3.52	3.82	4.45	4.88	5.27	5.67	9.26	5.21	5.04	3.89	4.70	3.82	5.55	5.35	4.17	5.04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6.18	25.36	-20.18	16.46	1.60	-16.72	-16.75	182.09	57.48	-13.60	-31.71	-37.86	-16.37	-40.13	11.22	-55.64	-13.13	-11.11

2024년 전국 평균은 5.04점으로 2022년 5.67점에 비해 11.11% 하락하였다. 2022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북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향상률의 폭은 -55.64%에서 182.09% 사이로 나타났다.

경기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세종은 분발에서 양호로, 경북은 보통에서 양호로, 부산은 분발에서 보통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경남은 우수에서 양호로, 충남, 전남은 양호에서 분발로, 대전, 충북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대구, 제주는 보통에서 분발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대구, 인천, 제주, 부산, 광주, 전북은 장애인관련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3)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최하 5.50개	평균 12.45개			최고 30.00개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수준>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수 수준은 평균 12.45개(최고 30.00개, 최하 5.50개)로 나타나, 2022년의 9.19개(최고 19.67개, 최하 1.23개)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45배(30.00/5.50)로 2022년의 15.99배(19.67/1.23)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개 지역이며, 보통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30.00개로 가장 높고, 대구가 5.50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23	3.59	3.56	2.45	19.67	17.33	14.50	17.00	14.47	6.84	4.08	9.25	7.20	6.87	7.21	7.63	13.33	9.19
2024	17.27	5.71	5.50	7.82	19.33	18.17	12.50	20.00	14.06	9.16	9.58	6.38	10.87	10.57	7.61	7.05	30.00	12.45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304.07	59.05	54.49	219.18	-1.73	4.85	-13.79	17.65	-2.83	33.92	134.80	-31.03	50.97	53.86	5.55	-7.60	125.06	35.47

2024년 전국 평균은 12.54개로 2022년 9.19개에 비해 35.47%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광주, 울산, 경기, 충남,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

역은 충남으로 31.03% 하락하였고,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1,304.07% 상승하였다.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서울은 분발에서 양호로, 충북은 분발에서 보통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는 우수에서 양호로, 충남은 양호에서 분발로, 경북, 경남은 보통에서 분발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개 지역은 장애인복지 조례 제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4)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최하 5.39점	평균 8.67점			최고 14.75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서울, 광주, 세종, 전북, 제주	대구, 대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과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 확보 비율로 산출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평균 8.67점(최고 14.75점, 최하 5.39점)으로, 2022년 평균 4.55점(최고 9.25점, 최하 2.43점)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74배(14.75/5.39)로 2022년의 2.74배(14.75/5.39)와 같아 지역간 격차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대구, 대전 2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광주, 세종, 전북, 제주 5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97	5.13	7.52	3.16	4.69	5.52	4.09	3.80	2.43	2.67	2.45	2.93	5.66	2.49	2.45	9.25	9.08	4.55
2024	10.48	8.64	14.75	8.15	10.72	11.80	8.21	9.35	7.97	5.39	6.07	6.17	10.06	5.79	5.86	7.17	10.87	8.6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63.98	68.42	96.14	157.91	128.57	113.77	100.73	146.05	227.98	101.87	147.76	110.58	77.74	132.53	139.18	-22.49	19.71	90.55

2024년 전국 평균은 8.67점으로 2022년 4.55점에 비해 90.55% 상승하였다. 2022년과 비교하면 경남만 22.49% 하락하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상승하였고,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227.98% 상승하였다.

대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 세종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인천, 경기도는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제주는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경남은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부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해 있어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5)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최하 11.81%	평균 27.45%		최고 42.69%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세종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서울, 전북, 제주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의 광역 지방비 비율과 기초 지방비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한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수준은 평균 27.45%(최고 42.69%, 최하 11.81%)로 나타나, 2022년의 평균 31.21%(최고 52.54%, 최하 12.20%)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61배(42.69/11.81)로 2022년의 4.31배(52.54/12.20)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전북,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세종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2.69%로 가장 높고, 세종이 11.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1.90	21.56	35.78	27.81	12.20	25.37	30.97	49.02	31.36	31.06	29.43	34.47	39.86	30.39	27.79	19.06	52.54	31.21
2024	41.93	24.00	17.59	27.27	25.00	25.18	28.19	11.81	33.40	29.46	27.74	21.16	36.00	23.23	25.93	26.13	42.69	27.45
2022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향상률	31.44	11.32	-50.84	-1.94	104.92	-0.75	-8.98	-75.91	6.51	-5.15	-5.74	-38.61	-9.68	-23.56	-6.69	37.09	-18.75	-12.05
-----	-------	-------	--------	-------	--------	-------	-------	--------	------	-------	-------	--------	-------	--------	-------	-------	--------	--------

2024년 전국 평균은 27.45%로 2022년 31.21%에 비해 12.05% 하락하였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남 5개 지역은 상승하였고,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2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최대 하락 폭은 75.91%(세종)였고, 최대 상승 폭은 104.92%(광주)였다.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서울, 전북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부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전, 울산, 강원, 충북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광주, 경남은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세종은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충남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분발 등급과 보통 등급에 속한 인천, 광주, 전남, 경북, 경남은 장애인복지 지방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6)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최하 0.16점	평균 3.47점			최고 8.59점
<b>분발</b>	<b>보통</b>	<b>양호</b>	<b>우수</b>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울산, 제주	서울, 대전, 강원, 경북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2024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평균 3.47점(최고 8.59점, 최하 0.16점)으로 나타나, 2022년 평균 2.74점(최고 11.08점, 최하 0.05점)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3.68배(8.59/0.16)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의 221.60배(11.08/0.05)에 비교해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강원,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울산, 제주 2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	----	----	----	----	----	----	----	----	----	----	----	----	----	----	----	----	----	----

2022	0.05	0.38	0.28	0.34	0.45	2.20	11.08	1.92	1.32	8.62	1.50	3.46	1.07	3.28	5.69	1.44	3.44	2.74
2024	8.07	0.54	0.75	0.16	0.56	7.84	4.93	2.81	1.42	8.59	2.03	2.85	1.35	2.56	7.44	2.01	5.12	3.4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6,040.00	42.11	167.86	-52.94	24.44	256.36	-55.51	46.35	7.58	-0.35	35.33	-17.63	26.17	-21.95	30.76	39.58	48.84	26.64

2024년 전국 평균은 3.47점으로 2022년 2.74점에 비해 26.64% 상승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2개 지역은 상승하였고,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5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최대 하락 폭은 55.51%(울산)였고, 최대 상승 폭은 16,040.00%(서울)였다.

강원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서울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전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경북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울산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충남, 전남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4년에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은 2022년 조사에서도 분발 등급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7)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최하 0.29점	평균 2.73점		최고 8.81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세종,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서울, 대전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원액 가중값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2.73점(최고 8.81점, 최하 0.29점)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0.38배(8.81/0.29)로 2022년의 40.90배(8.59/0.21)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대전 2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5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6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부산, 인천, 세종, 경기 4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81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0.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16	0.64	0.77	0.57	0.72	3.28	7.57	1.62	0.37	0.21	5.33	2.16	1.80	6.64	8.59	1.04	2.83	2.66
2024	8.81	0.53	1.76	0.64	1.76	6.88	3.11	0.61	0.29	1.57	4.49	1.81	1.60	4.08	2.83	2.16	3.50	2.73
2022 대비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59.48	-17.19	128.57	12.28	144.44	109.76	-58.92	-62.35	-21.62	647.62	-15.76	-16.20	-11.11	-38.55	-67.05	107.69	23.67	2.63

2024년 전국 평균은 2.73점으로 2022년 2.66점에 비해 2.63% 상승하였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상승하였고,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9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최대 하락 폭은 67.05%(경북)였고, 최대 상승 폭은 659.48%(서울)였다.

서울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또 대구, 광주, 강원, 경남은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울산, 전남, 경북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세종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